

33 요한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성경말씀: 요11:1-44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이다. 특히 구원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그런데 죄로 인해 모두가 죽는다. 모두가 무덤에 간다.

이런 것을 겪는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영원한 생명은 부활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다수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 대다수 종교들: 다시 태어난다. 윤회

그러나 기독교: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사도 바울의 표현(고전15:19),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

왜 부활이 필요한가? 15:47-53

오늘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부활할 것을 보여 주신다.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심으로써

나사로 부활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번째 기적(마지막 기적)

지상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기적'

그 이후에 주님 자신의 기적, <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의미, 나는 정말로 부활하는가?

또한 1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을 본다.

인간은 땅에 속한다. 땅의 시각, 하나님은 하늘의 시각

사고가 나서 차들이 가지 못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어디가 막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어디가 막힌지 보인다.

시각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

예수님과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 사람들의 대화, 시각의 차이

또한 오늘 보게 되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소망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아이들 속 썩이는 것, 직장을 잃는 것, 정말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모든 일,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사울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다. 40일 동안 나와서 외친다.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윗이 나타나니 게임이 달라진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태를 파악하였다. 결국 무릿매의 돌로 그를 죽여 버렸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배경(10:39-42)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가운데 3년 이상이 흘러갔다. 마지막 장막절, 그리고 성전 봉헌절

즐거우게 백성을 설득하고 영원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또 요9에서 하나의 엄청난 기적,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열어 줌,

이 정도가 되면 그분의 말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변화가 없다.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의 설명: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은

믿어야 한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들이 다시 죽이려고 하므로 요르단 너머로 피신하심((39-40)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41), 그리고 그분을 믿음(42), 말씀 사역의 부흥

이때에 문제가 발생함(11:1-16)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2),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을 보면 심각한 병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눅10:38-42, 베다니 사람들, 마르다는 쾌활하고 일에 분주한 여인

마리아는 조용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나사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두 여인의 동생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정도이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매우 친밀한 관계

이후의 대화를 보면 제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1. 나사로가 아프데 왜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죽게 내버려두실까?

2. 그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고 왜 이틀을 더 머무실까?(6)

3. 요4:43-54, 가버나움에 사는 어떤 귀족의 아들, 아버지가 간청하자 멀리 가나에서도 고쳐 주시지 않았는가? 왜 안 고치실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픈 사람, 죽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자.

아버지가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십자가 고통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신다.

제자들과 대다수 우리들의 바람: 빨리 가서 죽기 않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관점(4)

1. 하나님의 영광(시50:15),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메시지, 내 때(2:4; 7:6, 8; 8:20; 12:23; 13:1; 17:1)

나사로의 경우: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에 그는 이미 죽었다.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 더 이상 사람들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췌기를 막으려고

요한이 기록한 기적 중 최대의 절정의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부패된 시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 주면 더는 할 말이 없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임

예수님과 마르다(17-29)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17), 전갈이 온 날 바로 죽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킬로미터,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 위로함(19)

마르다가 그분 있는 데로 나감(20)

마르다(21-22),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말, 나쁜 말, 틀린 말이 아니다.

“왜 사고가 나도록 그냥 두셨나요? 그때 도와줄 수 없었나요?”

예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으신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라. 지금부터 7년 전, 2013년 11월 17일, 같은 본문 <성도가 울면 예수님도 우신다>, 당시 교회에 어려 가지 어려움, 차를 타고 가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였다. “힘이 듭니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아무 문제가 아니다.

오해하는 분들: 성경대로 믿으면 절대 울부짖으면 안 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면 안 된다.

다윗의 시편을 보라. 자기의 어려움,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한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께 쏟아놓으라고 말한다.

하박국을 보라. 왜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주님의 대답(23)

마르다의 대답(24),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미래의 일입니다.

주님의 대답(25), 네 말이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의 I am. 다섯 번째, I am. 나는 생명의 빵(6:35), 세상의 빛(8:12), 나는 문(10:9), 선한 목자(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구약 성경 단12:2-3, 13 등에 부활, 그러나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다.

딤후1:10,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사람 몸의 부활을 세 가지로 보여 주심:

1. 가르치는 교리로, 2.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로, 3. 본인 자신의 부활로
교리의 경우

1. 사람은 죽는다, 2. 죽음 뒤에도 생명이 있다: 부자와 나사로(눅16), 3.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요 5:28-29).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 성경에서 교리를 꺼내서 자신에게 적용하심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11:25).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하게 하는 것: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분이 생명이므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 그분이 부활이므로

몸이 아프다: 의사가 필요하다. 의학 서적이 아니라

고소 사건: 법전이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하다

죽음: 부활 교리가 아니라 부활이신 분이 필요하다.

교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교리가 정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가 가리키는 분, 그분이 부활을 일으킨다.

마르다의 반응(27), 아주 훌륭한 믿음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 인류의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당신은 하나님),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님과 마리아(30-37)

마르다가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28).

마리아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분을 만나러 나감

역시 동일한 말(32)

예수님의 고통(33)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히4:14-16)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죽는 것, 부모님, 성도들, 최정래 자매 등

이 문제를 직접 체험하시고 해결하시려고 오심(히2:14-18)

드디어 예수님도 우심(35), 왜 우셨느냐? 쓸데없는 이론 들고 나서는 사람들, '럭크맨이 이랬다 저랬다.'

다 헛소리, 성경의 해석은 문맥에 따라 한다. 매튜 헨리, 위어스비, 정상적인 해석

앞뒤 문맥을 보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특히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심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36): 그를 사랑하셔서 우심

나사로야 나오라(38-44)

드디어 무덤으로 가신다. 무덤(38)

유대인들의 무덤, 돌무덤, 산에다 굴을 파서 시신을 거기에 안치함

평민들의 경우 보통 동굴에 8구의 시신이 들어간다. 나사로 전에 이미 들어간 시신들이 있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39),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의 대답(39)

주님의 대답(40): 나사로가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

주님은 이때에도 마르다를 꾸지하지 않는다.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반응

주님의 아버지 찬양(41-42)

드디어 돌이 옮겨졌다. 동굴에 빛이 들어간다. 나사로의 시신, 다른 시신들

주님의 선포(43), 나사로 나오라!

사람들이 쳐다봄, 죽은 자의 몸이 움직이더니 그가 걸어서 나옴(44), 사람들의 기쁨

결론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때에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계21: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썩을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창조자, 구원자, 재림자